숫자로 보는
충북 50년사

건설 환경

78 주택현황
도시화로 인한 공동주택 주거 확대

80 주택 점유형태
1인가구 증가로 월세, 사글세 비중 급등

82 도로
사통팔달, 충북의 도로 현황

84 하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바람직한 하천으로

86 전력
산업용(제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88 상수도
1일1인 급수량 지속적 상승세

주택현황

충북의 주택
673,722호
단독 **50.6**%
아파트 **44.5**%
연립 **3.0**%
기타 다세대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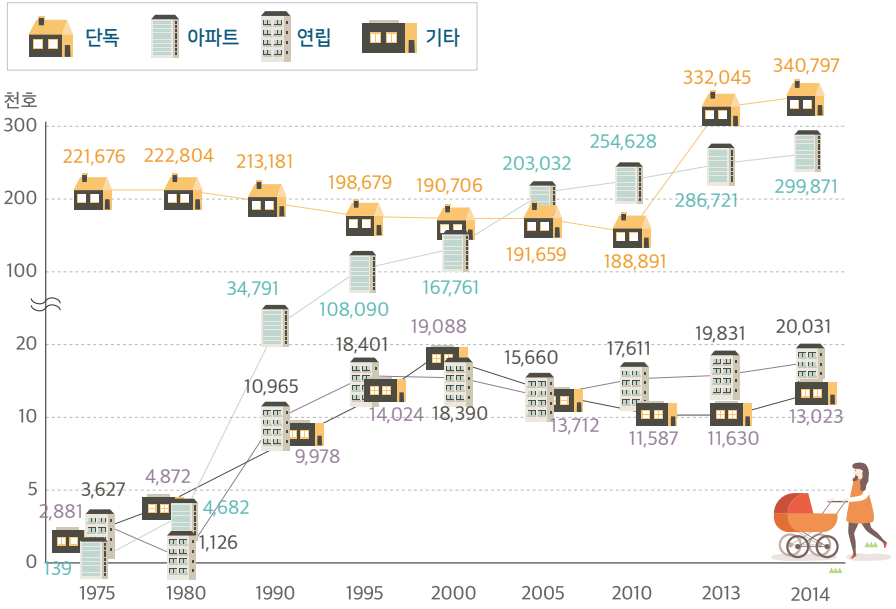
도시화로 인한 공동주택 주거 확대

충북의 주택은 673,722호이며, 단독(50.6%), 아파트(44.5%), 연립(3.0%)기타 다세대(1.9%)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택보급율은 110.3%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975년 228,323호에서 295.1% 증가한 것이다. 주택의 종류별 증감율을 살펴보면, 아파트의 증가율이 독보적으로 높아 1975년 139호에 불과했던 아파트는 2014년 현재 215,634.5% 증가한 229,871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주택은 452.3%, 단독주택은 5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의 경우 도시화가 급증하면서 아파트 주거가 급증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외에도 연립, 다세대 등의 주거도 동반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의 주거 양식 변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 집 마련의 꿈!
수도권과의 교통 접근성이 좋은 충북에서~



단위 : 호, %

구분	계	주택의 종류			
		단독	아파트	연립	기타
1975	228,323	221,676	139	3,627	2,881
1980	233,484	222,804	4,682	1,126	4,872
1990	268,915	213,181	34,791	10,965	9,978
1995	339,194	198,679	108,090	18,401	14,024
2000	395,945	190,706	167,761	18,390	19,088
2005	424,063	191,659	203,032	15,660	13,712
2010	472,717	188,891	254,628	17,611	11,587
2013	650,227	332,045	286,721	19,831	11,630
2014	**673,722**	**340,797**	**299,871**	**20,031**	**13,023**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2010년 까지), 건축문화과(2013년 부터)

주택
점유형태

충북의 주거형태
자가 **62**%
월세, 사글세 **20**%
전세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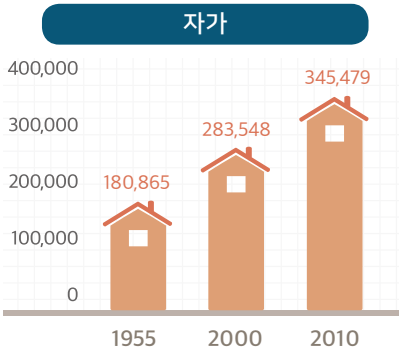
1인가구 증가로
월세, 사글세 비중 급등

충북의 주거형태는 전체 558,796세대 가운데 자가(345,479:61.8%), 전세(79,069:14.1%), 월세.사글세(114,076:20.4%), 기타(20,172:3.6%)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1955년과 2010년을 비교해보면 전체 주택은 164.1% 증가하였으며, 자가(91.0%), 전세(561.9%), 월세 및 사글세(691.9%), 기타(363.3%)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와 전세의 비중은 인구증가세와 비례해 안정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월세, 사글세의 증가가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자율 급감의 영향으로 한국 고유의 전통적 임대주택의 형태로 자리잡아 왔던 전세주택의 비중은 2010년 이후 급감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인 가구 시대를 반영한
'혼밥(혼자 먹는 밥)', '혼술(혼자 마시는 술)'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있어요



단위 : 가구

구분	계	자 가	전 세	월세/사글세	기 타
1955	211,572	180,865	11,946	14,407	4,354
1975	286,636	212,159	21,358	34,461	12,658
1980	290,941	212,155	37,132	34,120	7,534
1990	354,064	222,429	59,270	58,371	13,994
1995	407,664	265,563	74,189	54,384	13,528
2000	395,945	283,548	56,033	41,577	14,787
2005	505,203	303,995	73,328	107,376	20,504
2010	**558,796**	**345,479**	**79,069**	**114,076**	**20,172**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충북통계연보

도로

충북의 도로
6,858km,
포장율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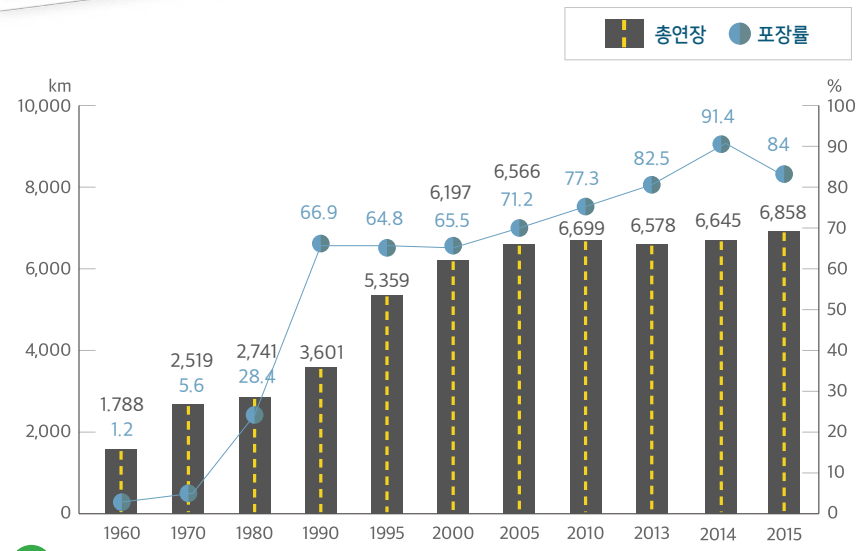
사통팔달,
충북의 도로 현황

충북의 도로는 1960년 1,788km에서 2015년 현재 283.6%가 증가한 6,858km로 나타났다. 도로 포장도 21km(1.2%)에서 5,763km(84.0%)로 늘어났으며, 미포장도로는 1,686km에서 573km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개통도로는 81km에서 522km로 나타났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녹색교통수단의 필요성이 커지고 고속도로 개통이 대부분 일단락 됨에 따라 추가적인 도로 개통은 급감하는 반면 철도 교통 비중을 제고시키고 있어 충북의 도로 확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충청내륙화고속도로, 안중-삼척도로, 제천-평창도로, 중부고속도로 확장 및 제2중부고속도로 등의 현안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 3차우회로로 개통
시내 30분 생활권 형성

3차 우회도로에는 지역을 연결하는 13개 교차로가 설치돼 오창, 진천, 증평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단위 : Km, %

구분	계	포 장		미포장	미개통
			포장률		
1960	1,788	21	1.2	1,686	81
1970	2,519	141	5.6	1,923	455
1980	2,741	780	28.4	1,600	361
1990	3,601	2,410	66.9	1,129	62
1995	5,359	3,460	64.8	1,353	546
2000	6,197	4,058	65.5	1,395	744
2005	6,566	4,672	71.2	851	1,043
2010	6,699	5,178	77.3	683	836
2013	6,578	5,429	82.5	575	574
2014	6,645	5,545	91.4	520	580
2015	**6,858**	**5,763**	**84**	**573**	**522**

자료 : 도로과, 「충북통계연보」

하천

하천 수
1962년 **182**개
2014년 **174**개

충북의 대표적인 도시하천
'청주 무심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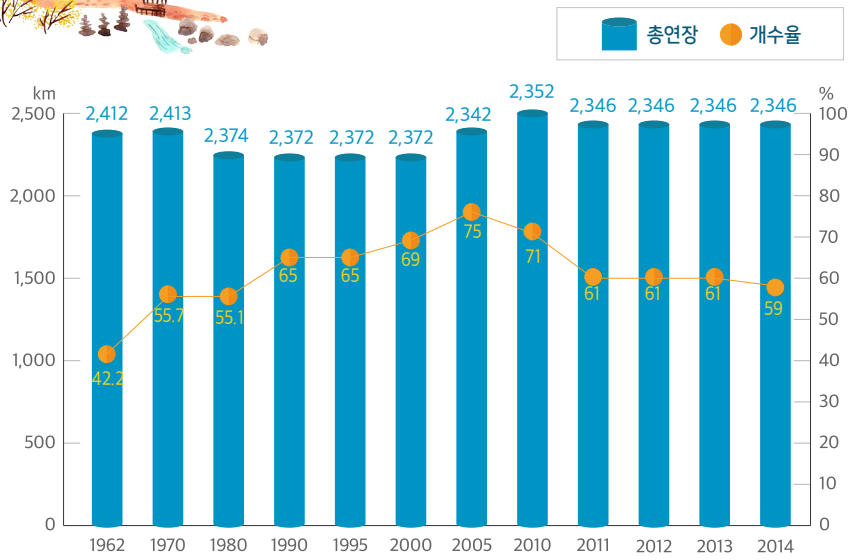
청주 무심천은 청주시민의 삶의 젖줄이자
생명의 터전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바람직한 하천으로

충북의 하천 수는 1962년 182개 였으나 2014년 현재 174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하천 총연장도 2,412km에서 2,346km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하천의 요개수(정비가 필요한 곳)는 651개소에서 2,056개소로 2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개수(정비가 완료된 곳)은 275개소에서 1,214개소로 341.5% 증가하였고, 미개수(정비가 착수되지 못한 곳)은 376개소에서 538개소로 4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하천의 효용성은 기존 환경정화기능 외에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재조명됨에 따라 친환경적 하천정비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위 : 개소, Km, %

구분	하천수	총연장	요개수			
			계	기개수	미개수	개수율
1962	182	2,412	651	275	376	42.2
1970	182	2,413	689	384	306	55.7
1980	182	2,374	1,457	788	669	54.1
1990	188	2,372	2,120	1,379	741	65
1995	188	2,372	2,470	1,607	863	65
2000	188	2,372	2,470	1,700	770	69
2005	183	2,342	2,472	1,845	627	75
2010	174	2,352	1,969	1,397	572	71
2011	174	2,346	1,979	1,212	767	61
2012	174	2,346	1,979	1,212	767	61
2013	174	2,346	1,979	1,212	458	61
2014	**174**	**2,346**	**2,056**	**1,214**	**538**	**59**

자료 : 치수방재과, 「충북통계연보」

전력

1980년

1,544,476 Mwh

2015년

22,949,032 Mwh

1,385.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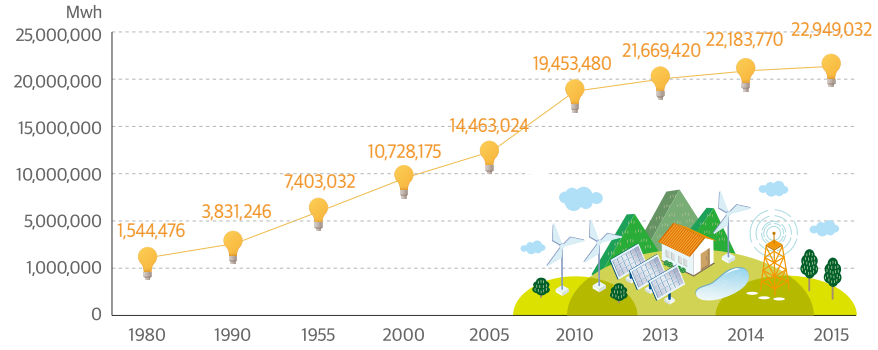
산업용(제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충북의 전력 현황은 1980년(1,544,476MWh)에서 2015년(22,949,032MWh)로 1,38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가정용(8.5%), 공공용(5.2%), 서비스업(19.5%), 산업용(66.8%)로 산업용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산업용의 경우 농림수산(4.4%), 광업(0.8%), 제조업(94.9%)로 제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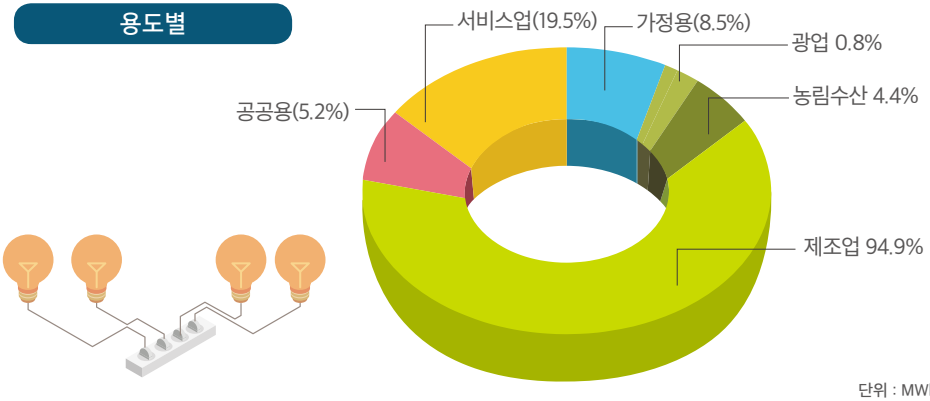
한편, 1980년을 기준으로 증감율을 살펴보면 평균 증가율이 1,385%로 나타났는데, 가정용(1,185.8%), 공공용(9,296.0%), 서비스업(4,749.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산업용의 경우 농림수산(9,680.3%), 광업(390.7%), 제조업(262.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충북의 전력사용량은 당분간 전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전기료의 지속적 상승 등으로 친환경제품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사용량 확대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전력 현황



용도별



단위 : MWh

구분	계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산업용			
					소계	농림수산	광업	제조업
1980	1,544,476	150,899	12,692	92,340	1,288,544	6,836	23,836	1,257,872
1990	3,831,246	446,308	115,002	308,895	2,961,041	72,995	64,325	2,823,721
1995	7,403,032	784,146	155,071	784,299	5,679,516	157,676	73,891	5,447,949
2000	10,728,175	1,081,441	256,152	1,796,077	7,594,505	254,360	69,906	7,270,239
2005	14,463,024	1,464,322	505,952	3,382,156	9,110,594	309,990	88,369	8,712,235
2010	19,453,480	1,837,210	950,123	4,474,499	12,191,648	479,599	95,222	11,616,827
2013	21,669,420	1,916,082	1,157,115	4,539,574	4,056,648	584,477	110,890	13,361,281
2014	22,183,770	1,891,874	1,140,230	4,358,318	14,793,349	606,490	113,110	14,073,749
2015	**22,949,032**	**1,940,308**	**1,192,535**	**4,477,619**	**5,338,569**	**668,578**	**116,955**	**4,553,036**

자료 :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 충북통계연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상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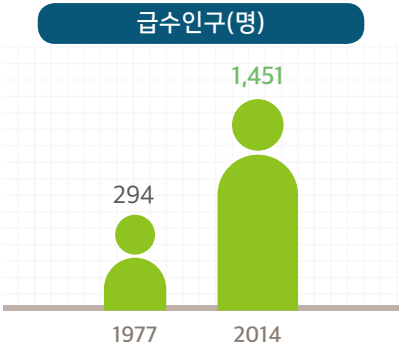
상수도 보급률
90.2%
1일1인 급수량
422리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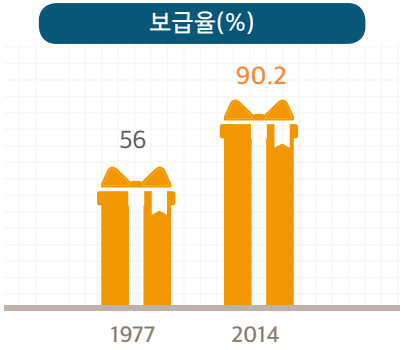
1일1인 급수량 지속적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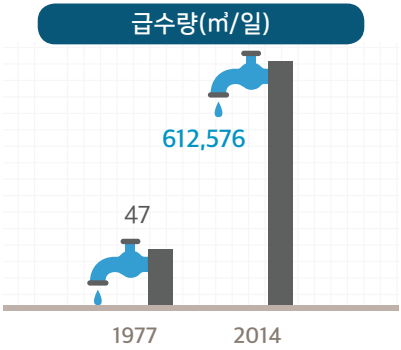
2014년을 기준으로 충북의 상수도 급수인구는 1,451천명, 보급율 90.2%, 급수량은 일 612,576㎥), 1일 1인 급수량은 422리터)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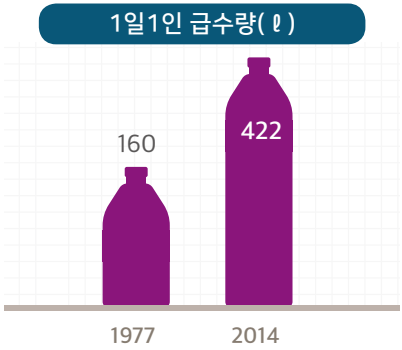
충북 상수도 관련 조사가 처음 시작된 1977년을 기점으로 볼 때 급수인구는 393.5%, 보급률은 34.2%p, 1일1인 급수량은 163.8%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수자원 사용량은 경제 성장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충북의 경우에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사용량이 급증추세를 나타내 1인1일 422리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1일 급수량은 최근까지 지속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선진국의 사례로 볼때 향후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수도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읍면지역 보급 확대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구분	급수인구(천명)	보급률(%)	급수량(㎥/일)	1일1인 급수량(ℓ)
1977	294	56	47	160
1980	413	60	71	173
1990	803	56.8	221,000	275
1995	919	63.7	326,043	355
2000	1,088	72.3	376,442	346
2005	1,201	80	484,273	361
2010	1,353	86	520,150	384
2012	1,394	87.6	566,396	406
2013	1,422	88.9	597,440	419
2014	**1,451**	**90.2**	**612,576**	**422**

자료 : 수질관리과, 「충북통계연보」